

길상(吉祥)의 땅

다지리초(田尻町)의 전신인 다지리무라(田尻村)는 1889 년 ‘요시미무라(吉見村)’와 ‘가시요지무라(嘉祥寺村)’가 합병하여 탄생했습니다. 메이지 시대부터 다이쇼 시대에 걸쳐 센슈 양파의 재배에 성공했고 다이쇼 시대부터 쇼와 시대에 걸쳐 방적업이 번창하며 작지만 풍요로운 지역으로 번영해 왔습니다.

그 후 헤이세이 시대에 들어와 간사이 국제 공항이 건설되었고 연안부에 새롭게 ‘링크 포트’가 탄생하는 등 다지리는 간사이 국제 공항이 있는 지역으로 한층 더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

이곳 ‘길상의 땅’은 요시미(吉見)와 가쇼지(嘉祥寺)가 교차하고 링크 타운과 간사이 국제 공항을 마주할 수 있는 장소이며, 또한 다지리에 방적업을 뿌리내리게 한 다지리 출신의 실업가 다니구치 후사조 씨의 별장으로 지어진 곳으로 현재는 다지리 역사관입니다.

‘면(綿)의 지방에서 태어난 면의 왕’으로 칭해졌던 다니구치 후사조 씨는 에도 시대 후기인 1861 년 요시미무라에서 출생한 실업가입니다. 그는 업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하는 오사카 합동 방적(현 도요보)을 설립했고, 방적에 사용하는 기계 등을 발명했으며, 또한 현재의 토요타 자동차 등의 기초를 쌓은 토요다 사키치 씨를 지원하는 등 방적 업계의 중심인물로 활약했습니다.

또한 고향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 지역에 방적 공장을 시작하며 인구와 세수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데 기여했고 요시미노사토역 유치, 도로 및 항구와 학교의 정비 등 다지리 발전에도 힘썼습니다.

그 후 고인이 된 그의 뜻에 따라 100 만 엔(현재 가치 약 50 억 엔)이 기부되어 다니구치 재단이 설립되었고, 과학과 물리학 및 수학 등의 연구 진흥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. 노벨상을 수상한 유가와 히데키 씨도 지원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.

이렇듯 다니구치 후사조 씨는 이 땅을 통해 일본 경제계를 견인하며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 발전에 공헌했습니다.

‘요시미(吉見)’의 ‘길(吉)’과 ‘가쇼지(嘉祥寺)’의 ‘상(祥)’으로 이루어진 단어 ‘길상(吉祥)’은 운수가 좋을 조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. 다니구치 후사조 씨의 공적을 기리고 이 고장을 방문한 모든 사람의 발전과 다복 그리고 ‘길상’이 일어날 것을 기원하며 이곳을 ‘길상의 땅’으로 명명합니다.